

# 전통의 손끝, 미래를 잇다 '위대한 유산전'

전주문화재단, 19일까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 작품으로 전통기술 가치 조명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키)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공동으로 우리 전통기술의 아름다움과 장인정신을 알리는 '위대한 유산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오는 4~19일 한벽문화관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전승공예품 37종, 6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공예·금속공예·섬유공예·도자

공예 등 전통공예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전통기술의 정수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예의 품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위대한 유산전'은 장인들이 세대를 이어 전승해 온 기술과 미의식을 통해, 시간을 잇는 손의 예술과 그 속에 깃든 정신적 울림을 전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재단은 전북 지역의 풍부한 무형유산물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의 사회

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라키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전통기술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문화임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전통과 현대, 장인과 관람객이 예술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예품전시관운영팀(063-281-1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독립영화 제작 현장에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활용방안 제시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독립영화제 연계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 개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급격히 변화하는 영화 제작 환경을 지역 창작자들이 적응·활용하는 것을 돕고자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에서 제25회 전북독립영화제 연계프로그램으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영화 제작 환경 속에서 지역 창작자들이 첨단 제작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개의 세션으로 열린 기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한산:용의출현'과 '일장춘몽', 뮤직비디오 'BTS RM Comeback to Me 등

VP Supervisor'를 참여한 모팩스튜디오 안현준 센터장이 동참했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하는 모팩스튜디오 안현준 센터장은 '창작자를 위한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을 주제로 독립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전시각화가 창작 의도 구현과 제작 효율성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영화 '영웅'과 '파일럿', '고지전'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제작에 참여한 웨스트월드 허동혁 본부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 버추얼프로덕션 전문기업 웨스트월드의 허동혁 본부장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현장에서 버추얼프로덕션을 지원하고 촬영해 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동혁 본부장은 "지역 창작자들이 버추얼프로덕션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동 장비 인프라 운영, 교육·멘토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가 영화 도시로서 가진 강점 위에 첨단 제작기술 기반 생태계를 더하기 위해 이번 소통의 장의 마련했다"면서 "지역 창작자들이 새로운 표현 방식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에서 제25회 전북독립영화제 연계프로그램으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776종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5년 세종도서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도서는 학술 부문 353종, 교양 부문 423종 등 총 776종으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초판 발행된 신간을 대상으로 했다.

세종도서 지원사업은 양서 출판 의욕을 높이

고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돕기 위한 대표적 출판 진흥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6,917종의 도서가 접수됐으며, 출판진흥원은 총 182명의 분과별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해 사전 검토와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도서를 확정했다.

출판진흥원은 올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 기간을 기존 3

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심사평만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도서별 심사평과 작성 선정위원명'을 함께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소 구매지원 금액을 800만 원에서 87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도서관 수요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된 도서는 내년 초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31만 권이 보급된다. 특히 올해는 해외 보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

8~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대표 이난초)가 주관, 올해 33회째를 맞은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 대회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판소리의 뿌리인 동편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무대로, 전국의 유명한 국악 인재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행사다.

대회는 일반부, 신인부(단체 및 개인),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부문의 판소리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부문의 고법 경연으로, 8일에는 예선, 9일은 본선이 열리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소리와 장단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1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건희(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 명창의 '홍보가' 완창 발표회가 열린다.

금파 강도근(1900~1980) 명창은 남원 출신으로,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을 이은 대표



적인 명창이다.

대표 작품으로 '홍보가, 춘향가, 심청가'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강도근제 홍보가'는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여성가족재단, 예비·신혼부부 '결혼천국 부부캠프' 운영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천국 부부캠프(2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결혼 초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는 부부간 소통을 촉진하는 심리 워크숍, 공동체 게임, 감정 나눔 프로그램 등 참여형 체험 위주로 진행, 전문가 강연도 병행했다.

전정희 원장은 "앞으로도 결혼초기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2차 캠프가 도내 예비·신혼부부에게 진정한 행복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 웨딩거리서 '웨딩거리 무비위크' 5~12일 개최

오는 5~12일 8일간 전주 웨딩거리에서 '웨딩거리 무비위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영화 (취)한 밤'이라는 소재목으로 다양한 영화 상영과 여러 게스트들의 시네마 토크 등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무명씨네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해 공동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기

획됐다.

특히 전주 원도심의 웨딩거리와 인근 상권에 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방점을 뒀다. 각자의 취향과 업종을 고려해 영화를 상영하며 영화 <소공녀> 강진아 배우, '전주 다방에서 만나' 오현 작가 등 게스트와의 시네마토크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주 웨딩거리의 비온드전주를 중심으로 프롤투, 책방 토닥토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객은 사전 신청([https://bit.ly/movieview\\_wedding](https://bit.ly/movieview_wedding))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